

# 우리 함께 위닉스 마을로 바꿔봐요

경기 목암 초등학교

2학년 2반 정인수

차디찬 바람이 코끝을 스치지만 햇살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날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곳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는 맑은 하늘과 맑은 웃음이 가득한 위닉스 마을이라고 해요. 푸른 숲과 맑은 공기로 둘러싸여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이지요. 잠시 신기한 곤충들과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감상해 볼까요? “두리번~ 두리번 스으윽~속.” 어떻게 감상은 즐거우셨나요? 참으로 자연은 아름답고 신비롭죠? 그 곳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쑥쑥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 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들어 볼까요? 하나! 나무를 심고 가꿔요. 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요. 셋! 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해요. 넷! 세제 사용을 줄여요. 자~ 어땠나요? 참 쉽죠? 우리가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같은 규칙들은 위닉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거래요. 햇빛, 공기, 바람, 물 등은 우리 생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환경들이니까요. 즉,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보호하시 위한 방법 인거죠.

지난번 이 곳에 아랫 마을인 파닉스에서는 초미세 먼지로 몸살을 앓았대요. 화창한 봄날에도 공기오염으로 인해 외출 시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했고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하니 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했대요. 인근 병원들은 환자들로 넘쳐났고요. 수 많은 사람에게서는 이상한 소문까지 들었대요. 그것은 다름아닌 ‘환경재앙’이라고요. 하늘에서 벌을 내린거라네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렸고요, 목이 아프고 계속 기침을 했대요. 그리고 코가 간질간질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인 호흡기 질환도 생겨 났대요. 심하게는 폐암으로 건강을 위협하기도 했대니까요.

말로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끔찍하죠? 지금의 파닉스 마을 주민들은 예전처럼 맑은 하늘과 맑은 공기를 몹시도 그리워한대요. 환경의 재앙을 너무나도 무섭게 경험한 탓이겠죠? 그래서 파닉스 마을 주민들은 예전처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 대책을 마련 했대네요.

여러분! 과연 그게 무엇을까요? 우리도 다 함께 곰곰히 생각해 봐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떠올랐다고요? “아~ 예. 바로 그거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큰 소리로 다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나무를 심고 가꿔요. 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요. 셋! 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해요. 넷! 세제 사용을 줄여요.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파닉스 주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요. 만약 공기가 더 심하게 오염된다면 우리 모두가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메고 생활할 수도 있다잖아요. 생각만으로도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함께 이 네가지 규칙을 실천에 옮겨봐요. 우리나라 전체를 우리의 힘으로 위닉스 마을로 바꾼다면 이 얼마나 뜻 깊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겠어요?

“아, 맞다! 그 동화 같은 세상이 보고 싶다구요?” 제가 그만 깜빡 잊을뻔 했네요. “누구라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는 맑은 하늘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활짝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니깐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하늘시 맑은구 별이 쏟아지는 마을의 위닉스로예요. 많이들 구경하러 오세요. 이 곳은 항상 열려있답니다. 땅에는 꽃과 풀들이, 하늘에는 맑은 구름이 항상 대기하며 마중 나갈 준비중이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_^

2017년 12월 19일

인수가